

무소속 강주덕 후보 선대본부장 조영희

답변1)강주덕 후보와의 인연이 동국대학 입학에서 시작된 이래 4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하였던 강주덕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쪽 지켜보았지만 한 길로 살아오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광명정



우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크게 보면 총체적 무능과 구시대적인 파벌의 독점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는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명해졌습니

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는 필연적 사실을 선거라는 학습으로 유권자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고 논리가 바르며 자기희생을 감수할 정치인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속초 고성 양양지역을 돌면서 이를 짧은 시간 안에 널리 알리는 길이 당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답변2)먼저 무소신과 무정견, 부와 권력의 세습, 명예의 독점이 야기하는 허무적 행태를 경계합니다.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지역경제의 초토화에서 벗어나려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이 가져온 극단적 폐해를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작은 부문에서부터 지역의 이해를 남북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려는 속초 고성 양양의 결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급신거리는 후보자의 들러리가 아닌 지역민심의 심판이 무소속 강주덕을 선택하리라 봅니다.

답변3)독재와 반민주에 항거하던 시대가 역사 뒤편으로 물러나고 정권교체를 통한 중도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각을 세

우던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크게 보면 총체적 무능과 구시대적인 파벌의 독점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는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명해졌습니

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는 필연적 사실을 선거라는 학습으로 유권자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고 논리가 바르며 자기희생을 감수할 정치인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속초 고성 양양지역을 돌면서 이를 짧은 시간 안에 널리 알리는 길이 당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조영희= 만58세, 경북, 동국대학교정보산업대학원 졸업, 민주화관련유공자·동국대민주동문회장·광진커뮤니케이션 대표.

무소속 황정기 후보 선대본부장 황병기

답변1)설악권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광 교통인프라등, 17대나 18대 국 의회원 분들은 설악권을 외면 하였습니

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다가가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정치나 정치인을 양종게 생각하는 것들(예 과다문자 과다통화 등)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임하고 있습니다.

답변2)우리 지역은 역대로 외지인 이나 반 외지인들이 국정을 담당해 왔습니

답변4)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나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판세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등 정치권에 등을 돌렸다 생각 합니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인 황정기후보가 현재는 중 상위권이나 막판 세몰이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미래를 위한 선택을 유권자들이 잘 판단 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합니다. 답변3)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 3개 선거구 이나 생활권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는 시내권과 농촌권 어촌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운동에 임하고 있으며, 양양군은 면 단위 보다는 지역별 소 그룹으로 나눠 생활권과 교통권으로 구분 하였고, 고성군 역시 생활권과 교통권으로 구분 하여 바다 민심

황병기= 55세, 속초시, 중졸, 전) 송천장어(식당) 대표·전) 온정향우회 회장·전) 18대 총선 황정기 후보 선대본부장.

※황병기 선대본부장은 본인이 사진 게재를 원하지 않아 실지 않았습니다.

4월11일 국회의원선거
선거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인터넷 창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를 검색해 보세요

후보자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선거대책위원장)들의 각오

저마다 승리 장담 ... 막판까지 최선 다하겠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서는 5명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각 선거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선거대책본부장)들은 저마다 승리를 장담하며 선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장은 "강후보와 함께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강제 징집을 당하기도 했다"며 "광명정대한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정계에 투신한 강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선거캠프의 최현규 선대총괄본부장은 "고향의 미래를 결정짓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속초-고성-양양의 간절한 소망인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일하고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손문영 후보 선거캠프의 황돈태 선대본부장은 "남을 도와 당선도 시켜보았지만 그들과 손후보를 비교해 보면 큰 부끄러움에 빠지게 된다"며 "진흙같은 정치판 속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후보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자랑이자 보람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선거캠프의 박학성 선대위원장은 "송후보는 워낙 성실하고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라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4선에 당선돼 강원도 대표정치인이 돼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선거캠프의 황병기 선대본부장은 "우리 지역은 역대로 외지인 이나 반외지인들이 국정을 담당해왔으며, 그러다 보니 지역의 미래발전의 밑거름인 교육 등에 등한시하였다"며 "황후보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성군선관위 투표관리교육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읍면위원회 간사와 서기 2차 교육 및 투표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원광연 기자

무소속 강주덕 후보 선거캠프의 조영희

최광호 기자